



오답풀이 ① 자연물명에는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르게 표기되었다.

② 명사에서는 ‘ㅎ’을 축약하지 않고 밝혀 적는다. 바르게 표기되었다.

④ 중국 인명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이 있는 인명은 한자음으로 읽는 것을 허용한다. ‘모택동’, ‘마오쩌둥’ 모두 맞는 표기.

4. 다음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수정한 것은?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①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②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③ 희노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 ④ 희로애락을∨함께하며∨가족같이∨지내던∨친구가∨한번∨놀러∨오라고∨연락을∨했다.

4. 정답 ④

해설 ‘함께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놀러(본용언)’, ‘오라고(본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모두 바르게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함께하며’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놀러’와 ‘오라고’는 모두 독립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② ‘함께 하며’는 동사이므로 붙여 쓰고 ‘한번’은 부사로 ‘기회 있는 어떤 때’라는 의미이므로 붙여 쓴다.

③ ‘같이’는 조사이므로 체언에 붙여 쓰고 ‘한번’도 부사로 붙여 쓴다.

5. 다음 중 밑줄 친 차자 표기의 방식이 다른 하나는?

善化公主主隱	善化公主니른
他①蜜②只嫁良置古	늬 그스지 얼어 두고
薯童房乙	맛둥바을
夜③矣④乙抱⑤遣去如	바미 몰 안고 가다

- ① ㉠                      ② ㉡                      ③ ㉢                      ④ ㉣

5. 정답 ①

해설 향찰에서 실질형태소는 한자의 ‘훈’을 이용하고 형식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다. ‘蜜(비 밑할 밀)’은 ‘그스지’에서 뜻이 있는 어간을 표현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형식형태소를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只(다만 지)’는 음운을 이용하여, ‘그스지’에서 ‘지’를 표기했다.

③ ‘矣(어조사 의)’는 음을 이용하여 ‘익’를 표기

④ ‘遣(보낼 견)’은 음을 이용하여 ‘고’를 표기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 밀·씨

㉠꽃 : ㄷㅌ ㄱㅌ ㄹㅌ ㅍㅌ ㅎㅌ ㄴㅌ  
 : ㅅㅌ ㅁㅌ ㄱㅌ ㅍㅌ ㅁㅌ ㄹㅌ ㉡ㅌ ㄱㅌ ㅁㅌ ㄹㅌ ㅍㅌ ㅎㅌ ㄴㅌ  
 ㉢ : ㄴㅌ ㅎㅌ ㄴㅌ ㄹㅌ ㅁㅌ ㄹㅌ ㅁㅌ ㄱㅌ ㅎㅌ ㄴㅌ

- ① ㉠에는 주격 조사와 만나 형태가 변한 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 ② ㉠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당시의 표기법에는 어긋난다.
- ③ ㉡에는 현대 국어의 명사 ‘가물’의 옛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
- ④ ㉢에서 조사가 생략되었다면 ‘내’의 형태로 쓰였을 것이다.

6. 정답 ①

**해설** ‘나모’는 조사가 결합할 때 ‘ㄱ’이 덧생기는 특수한 명사이다. [예] 나모+ㄱ+는 -> 남근, 나모+ㄱ+이 -> 남기

**오답풀이** ② 소리나는 대로 적는 8중성법에 의하면 ‘곳’으로 표기한다.

- ③ ㄱㅌ ㄹㅌ -> ㄱㅌ(명사)+애(원인부사격조사) ‘ㄱㅌ’은 오늘에 가물, 가물 등에 해당한다.
- ④ ‘내’는 조사가 붙을 때 ‘ㅎ’이 따라오는 ‘ㅎ덧생김체언’에 해당한다. 예) 내+ㅎ+이→내히

7. 다음 중 한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한글은 창제 당시 28개의 기본자 중 17개가 자음자였으며 모음자 중 4개는 이중모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② 한글은 소리 문자이지만 일본의 ‘가나’와 다른 음소 문자로서 개별 글자가 하나의 음소에 모두 일대일로 대응된다.
- ③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글 자모 명칭은 같지만 사전에 올릴 때에 사용하는 한글 자모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 ④ ‘ㄱ<ㅋ<ㄲ’과 같이 소리의 세기를 가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과정에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7. 정답 ①

**해설** 창제당시에 자음 17자 모음 11자이고 단모음7자 이중모음 4자로 나타내었다.

**오답풀이** ② 일본의 ‘가나’는 음절문자이다. 그러나 한글의 개별글자는 여러 개의 음소를 모아쓰기 하였으므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북한과 자모의 명칭이 다르고 순서도 다르다.

\* 명칭이 다름

남 : 기역 디글 시읏 쌍기역 쌍디글 쌍비읍....

북 : 기읍 디읍 시읏 된기읍 된디읍 된비읍....

\* 순서가 다름

북한 사전은 ㄱ, ㅋ, ㄲ, ㅊ, ㅌ, ㅍ, ㅍ이 자음의 맨 뒤에 위치한다.

- ④ 예사소리<된소리<겨센소리의 순서로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 따라서 가획원리와 관계 없다.

[예] 빙빙<뽕뽕<핑핑

8.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 ① 이런 날씨에 비를 맞추니 멀쩡한 사람도 병이 나지.

- ② 너라면 아마도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 ③ 우리 선수는 마지막 화살까지도 10점 과녁에 맞혔다.
- ④ 그는 그녀와의 약속 시간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었다.

8. 정답 ④

해설 '맞추다'는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① 맞추니 -> 맞히니 ② 맞출 -> 맞힐 ③ 맞혔다. -> 맞혔다.

9. 다음 중 문장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 ② 선생님, 제 말씀부터 좀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③ 정성이 이 정도라면 여간한 성의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 ④ 선생님, 선생님께 훈장이 추서됐으니 수여식에 참석하시래요.

9. 정답 ②

해설 '말씀'은 높임과 낮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의 낮춤의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① 소개시켜 -> 소개해 ③ 여간한 성의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 여간한 성의가 아니네요. ④ '추서'는 죽은 뒤에 훈장을 주는 것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

10. 다음 문장에서 '-었-/-았-/-였-'의 문법적 기능이 밑줄 친 예와 가장 유사한 것은?

그 두 사람은 쌍둥이인 것처럼 서로 정말 닮았다.

- ① 모두가 기다리던 그가 밤늦게 공항에 도착하였다.
- ② 윤희는 예쁜 파란색 모자를 사고서는 방금 떠났다.
- ③ 그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정말로 잘생겼다.
- ④ 결국 곧 진실이 드러날 테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10. 정답 ③

해설 '았/었'은 과거로만 쓰이지 않고 현재 미래로 모두 사용된다. 주어진 보기는 현재 사실을 나타낸다. ③도 현재 사실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과거 ② 과거 ④ 미래

11. 다음 밑줄 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적절한 것은?

1.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1.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1.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 |      |     |    |
|------|-----|----|
| ㉠    | ㉡   | ㉢  |
| ① 發揮 | 排他的 | 一刻 |
| ② 撥揮 | 排他的 | 一覺 |
| ③ 發揮 | 俳他的 | 一刻 |
| ④ 撥揮 | 俳他的 | 一覺 |

11. 정답 ①

해설 發(필 발) 揮(휘두를 휘), 排(밀칠 배) 他(다를 타) 的(과녁 적), 一(한 일), 刻(새길 각)

12. 다음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관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여 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훌훌 뉘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꽤가 길거리에서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 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뚝뚝스럽게 날아드는 과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트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그만 걷을까?”

- ① ㉠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 ② ㉡ : 곤충의 한 종류로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 : 얼굴에 우묵한 마맛자국이 생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 ④ ㉣ : 여러 가지 농기구를 파는 작은 가게를 일컫는다.

12. 정답 ④

해설 ㉣ ‘트팀전’은 온갖 피륙(옷감)을 팔던 가게

13.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둥 치면 들보가 운다 :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억울하게 배상을 하게 된다.
- ② 게도 구멍이 크면 죽는다 : 분수에 지나치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다.
- ③ 토끼 밧에 여우 걸린다 :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
- ④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 자기의 과실은 생각지 않고 상대만 원망한다.

13. 정답 ①

해설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꽃 디고 새 닙 나니 녹음(綠陰)이 짙겠는디, 나위(羅幃) 적막(寂寞)하고 슈막(繡幕)이 뷔여 있다. 부용(芙蓉)을 거더 노코,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꺾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뻛던고. 원앙금(鴛鴦衾) 버혀 노코 오식선(五色線)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슈품(手品)은쿠니와 제도(制度)도 그줄시고. 산호슈(珊瑚樹) 지게 우히 백옥함(白玉函)의 다마 두고, 님의 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산(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천리(千里) 만리(萬里) 길흘 누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 (나)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흰 빗친 제, 사름은쿠니와 놀새도 꺾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닐러 므습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첩(茅簷) 비훤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半)만 거더, 일모 슈둑(日暮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틱 던공후(鈿篋篋)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썰고.
- (다)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벨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슈정님(水晶簾) 거든말이, 동산(東山)의 들이 나고, 북극(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쥐여 내여 봉황누(鳳凰樓)의 붓티고져. 누(樓) 우히 거러 두고 팔황(八荒)의 다 비취여, 심산궁곡(深山窮谷) 점낫마티 밧그쇼셔.
- (라) 동풍(東風)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창(窓) 밧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띄여세라. 꺾득 닝담(冷淡)하디 암향(暗香)은 므스일고. 황혼(黃昏)의 들이 조차 벼마틱 빗죄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梅花)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14. 이 글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배열한 것은?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라) → (가) → (다) → (나)  
 ④ (라) → (나) → (가) → (다)

14. 정답 ③

해설 (라) 봄 -> (가) 여름 -> (다) 가을 -> (나) 겨울

15. 이 작품의 주제를 연군지정(戀君之情)이라 할 때, 각 단락에 나타난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자신의 정성을 임금에게 전하고자 함.
- ② (나) -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고 임금을 그리워 함.
- ③ (다) - 자신과 임금이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함.
- ④ (라) -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알리고자 함.

15. 정답 ③

해설 청광(나의 충성심) 팔황(온세상) 심산궁곡을 (세상 구석구석을) 점낫ᄃ티(대낮같이) 밍그쇼셔는 애민정신을 뜻하는 내용이다.

※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 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형견 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깃도 개 터럭도 타는 모닥불

㉡채당도 초시도 문장(門長)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16.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닥불을 함께 쪼며 개인적 삶을 긍정하고 있다.
- ② 감각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③ 1연과 2연은 동일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3연에서 불행한 가족사와 민족사를 접목시키고 있다.

16. 정답 ①

해설 무가치하고 버림받는 모든 것이 차별없이 타는 모닥불의 이면에는 어릴적 고아가 되어 서럽게 자란 할아버지의 슬픈 내력이 담겨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적 삶을 긍정한다고 할 수 없다.

17. 시어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가족신의 밀창

② ㉞ : 아버지의 사촌 형제

③ ㉟ : 새 사돈

④ ㊱ : 딸려 붙었던 것이 다 떨어지고 몸뚱이만 남은 물건

17. 정답 ㉞

해설 '제당'은 재실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문중 회의를 할 때 일을 주관하던 학덕 높은 집안의 어른을 말한다.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하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시경’을 읊었다.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 어느 것을 모형 삼아 만들었나?”  
그러고 나서  
“이는 흥(興)이로다.”  
하였다.  
다섯 아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예기(禮記)에 과부의 집 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곽 선생님은 현자가 아니신가.”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더라.”  
“여우가 천년을 목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중략)……

(나)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에워싸고 공격하니,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뺨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너

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라)“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諛)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18. 이 글과 주제 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붉가버승 兒孩(아해) | 들리 거미줄 테를 들고 기川(천)으로 往來(왕래)하며, 붉가승아 붉가승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스느니라. 부로나니 붉가승이로다. 아마도 世上(세상)일이 다 이러흔가 흐노라.
- ② 宅(택)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사야 네 황화 그 무엇이라 왜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後行(전행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醬(청장) 아스스 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사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것이라 하렴은.
- ③ 靑天(청천)에 뗏는 기러기 흐 雙(쌍) 漢陽城臺(한양성대)에 잠간 들러 쉬여 갈다. 이리로서 저리로 갈 제 내 消息(소식) 들어다가 님의게 傳(전)호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제 님의 消息(소식) 드러 내손터 브디 들러 傳(전)호여 주렴. 우리도 님 보라 밧비 가는 길히니 傳(전)호 동 말 동 호여라.
- ④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협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산) 브라보니 白松鵲(백송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 즉 호여 풀덕 썬여 내듯다가 두협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랜 넝시망정 에혈질 번호패라.

**18. 정답 ④**

**해설** 연암 박지원의 ‘호질’이다. ‘호질’의 주제는 양반의 도덕적 위선을 풍자한 것이다. ④도 부패한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 내용이다.

- 오답풀이** 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는 시  
 ② 몰락한 양반이 한자어를 쓰는 위선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임금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을 노래

**19. (가)~(라)에 나타난 상황을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表裏不同                      ② (나) - 命在頃刻
- ③ (다) - 巧言令色                      ④ (라) - 櫛風沐雨

19. 정답 ④

해설 ④ 즐풍목우 : 바람에 머리를 빗질하고 몸을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면서 온갖 고생을 한다는 뜻으로 (라)글과는 맞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표리부동 -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룸 ② 명재경각 -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룸 ③ 교언영색 -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남을 속임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① ㉠ :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 :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 준다.
- ③ ㉢ :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 ④ ㉣ : 난쟁이가 가족의 어려운 삶의 형편을 보여 준다.

20. 정답 ③

해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있는 내용이다. ③ ㉢에서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라는 말을 볼 때 이미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고 예상하고 있다.